

美, 에볼라 두번째 감염 환자 확진 판정

감염자 돌보던 간호사...자국내 전염 첫번째 사례

에볼라 공포 확산...美·英 등 백신 개발 노력 박차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근 다른 대륙으로 퍼지면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본토도 '에볼라'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두번째 환자 발생=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달러스 소재 텍사스건강장로병원의 여성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 판정했다고 밝혔다. CDC는 성명을 통해 "환자 본인과 가족, 동료, 그

리고 더 나아가 달러스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이라면서 에볼라 확진 사실을 발표했다. 이 여성 간호사는 미국 내 두 번째 에볼라 환자이자 서아프리카가 아닌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에 전염된 첫 번째 사례다. 이 간호사는 지난 8일 사망한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 토머스 에릭 던컨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볼라에 감염됐으며, 10일 밤부터 미열 증상을 보여 곧바로 격리조치됐다.

◇세계 각국 비상=미국은 11일(현지시간)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사태가 심

각한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에 대한 입국 검사를 시작했다.

입국 검사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의 체온을 잰 뒤 건강 상태나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보건기관이 자국에 들어오는 승객을 대상으로 이처럼 체온을 재는 입국검사를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JFK 공항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워싱턴DC 달러스 공항, 시카고 오희어 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뉴욕 리버티 공항으로 입국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외에 페루와 우루과이도 공항 입국 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멕시코와 니카라과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캐나다도 서아프리카 3개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출국을 권고했으며 국경 지방에

서 검사를 강화했다. 영국에서는 11일 에볼라 발병 때 정부와 의료진의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이 진행됐다.

◇백신 개발 노력 박차=아프리카 말리에서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공동개발한 백신에 대해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또 러시아의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보건장관은 러시아가 3종의 에볼라 백신을 개발, 이 중 한 종은 이미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6개월 안에 사용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여성 간호사 테레사 로메로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메로는 10일 밤부터 실험 단계인 에볼라 치료제 '지엠'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국제사회, 54억 달러 지원

국제사회가 지난 7~8월 50일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에 54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지원한다.

노르웨이의 보르케 브렌데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재건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총 54억 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이 요청한 40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결코판도의 산유 부국 카타르 정부가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도 각각 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억

1200만 달러를 가자 복구를 위해 긴급지원하겠다고 천명했고, 유럽연합(EU)도 4억5000만 유로(5억6800만 달러) 공여를 다짐했다. 근년 들어 중동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터키는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여국들은 이번에 조성된 재건자금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아닌 압바스 수반이 이끄는 PA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PA의 주축 정파 파타와 하마스는 최근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지난주 가자에서 첫 내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팔레스타인 정부는 76쪽짜리 재건계획을 공개하고 주택 건설 자원에 가장 많은 자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긴장 고조 홍콩 경찰이 13일(현지시간) 오전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와 까우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지역 내에 설치된 시위대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경찰, 시위대 바리케이트 철거

행정장관 "도심 통제 불능 상태...최종적으로 정리 필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가 13일(현지시간)로 16일째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가 점거한 지역 일부에서 바리케이트 철거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와 까우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지역 내에 설치된 바리케이트 중 시위대의 경비가 취약한 곳부터 바리케이트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철거 작업을 방해

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해산하라고 촉구했으며, 경찰이 최루가스통을 운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앞서 림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홍콩 TVB 방송에서 "도심 점거 운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혁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최종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국 사정칼날 학계로까지 확대

국가행정학원 부원장 등 체포

중국 사정당국이 국가행정학원 부원장과 국가공정원 원사 등을 잇달아 체포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사정칼날'이 학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3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검찰·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허자청(何家成·58) 국가행정학원 상무부원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은 중급 공무원을 양성하

는 중국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허 부원장은 '성부급'(省部级·장차관급) 관료 신분봉을 갖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또 중국농업대학 리닝(李寧) 교수 등 8명의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을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연구비를 착복·유용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리닝 교수는 중국공정원 원사 자격을 갖고 있어 처음으로 공정원 원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가자지구 방문한다

반 "주민 얘기 직접 들겠다"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오는 14일(현지시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한 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자를 찾아가 가자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겠다"며 이스라엘 옆에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실은 라미 함달라 총리가 13일 아침 서안지구 라말라에서 반 총장과 회담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과 대통령실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레우엔 리블린 대통령이 13일 오후 예루살렘에서 각각 반

총장을 접견한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이번 가자지구 방문으로 2012년 2월 이래 처음 팔레스타인 영토를 찾는다.

한편 반 총장은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진격한 시리아 국경도시 코바니와 관련해 "그곳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코바니를 놓고 IS와 쿠르드 무장대원이 격전을 치르면서 "수천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며 "다시 한번 모든 당사자가 코바니에서 민간인 학살을 막도록 과감히 맞서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활화산 마운화산 폭발 임박

2차례 용암분출 관측

필리핀 루손 섬 남동부의 활화산인 마운화산이 정상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등 본격적인 분출이 임박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ABS-CBN방송과 필리핀스타 등은 화산지진연구소를 인용, 전날 알바이주의 마운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약 350m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마운화산의 용암은 이날 오전 연구소 측의 항공 촬영과 현지 민방위대에 의해 두 차례 관측됐다. /연합뉴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들어 용암이 흘러나오면 이어 본격적인 화산 분출이 이뤄진다면 분출활동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원도 마운화산의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산 윗부분으로 밀고 올라와 용암이 흘러나왔으며 화산 주변에서 입수되는 각종 자료로 미뤄볼 때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운화산 일대에는 앞으로 수주 안에 위험한 수준의 분출활동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3단계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연합뉴스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동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시정원예, 병원, 모텔, 펜션, 어린이집, 목욕탕, 요양원 등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1644-8983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건국대학교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